

전주 선미촌, '예술촌'으로 화려한 변신

현장 목소리 청취로 성매매 집결지 정리... 문화재생사업 프로젝트 탄력 기대

60여년 동안 닫혀있던 성매매집결지인 전주 선미촌에서 예술 전시회와 동네잔치가 열리는데 이어, 이를 진두 지휘할 현장시청이 들어섰다.

성매매집결지에 시청이 설치된 것은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이다.

선미촌 내에 현장시청이 설치됨에 따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면서 주변 일대를 예술촌으로 바꾸는 작업이 본격화되고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지원에도 집중하는 등 문화재생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는 성매매집결지인 선미촌을 정비하기 위해 대규모 공권력을 투입하는 대신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한 점진적인 기능전환을 추진해 오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아 왔다.

시는 11일 선미촌 내 매입성매매업소에서 김승수 시장과 시의회 이병하 도시건설위원장과 시의원, 조선훈 대표를 비롯한 선미촌정비민관협의회 관계자, 노송동 주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노송예술촌 현장시청' 현판식을 가졌다.

서노송예술촌 현장시청은 전주시가 '시청은 본집은 건물이 아니라, 시민의 삶과 직결된 현장에 있다'는 취지로 설치한 여섯 번째 현장시청으로, 도시재생과 서노송예술촌팀 직원 3명이 지난달부터 업사이클센터로 조성되는 선미촌 내 매입성매매업소 1층으로 일터를 옮겨



11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의 한 건물에서 '서노송예술촌 현장시청' 현판식이 열리고 있다.

근무해왔다.

특히, 서노송예술촌 현장시청은 시민의 업무 편의와 행정지원을 위해 설치됐던 기존의 현장시청들과는 달리 성매매집결지 정비를 통한 선미촌 문화재생사업과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를 보다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운영된다.

이를 위해, 시는 서노송예술촌 현장시청 사무실에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 선미촌정비민관협의회의원들 뿐 아니라 선미촌 인근에 거주하는 노송동 주민들과 선미촌 토지·건물주, 성매매업주 및 종사자 등 선미촌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들을 계획이다.

동시에, 시는 서노송예술촌 현장시청을 통해 '전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에 근거한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자활을 위한 상담, 생계비 및 직업훈련비 지원, 탈성매매를 위한 법률의료·주거·직업훈련 지원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서노송예술촌 현장시청이 추진하는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는 선미촌을 포함한 서노송동 일원 11만㎡(약 3만3000평)을 대상으로 행복주택 건립 등 주거복지 사업과 골목경관 정비, 소방도로 및 주차장 설치, 주민커뮤니티 공간 확보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프로젝트에는 또 선미촌 문화재생사업의 정적인 아트팩토리와 여행지대역시, 가로환경정비사업인 여행길조성과 공동체육시설 사업 등을 포괄하고 있다.

/인재용 기자

전주시~가나자와시, 2017 독서 대전

오는 9월 1일 ~ 3일까지 전주서... 두도시 교류 강화 계기

전주시와 국제자매도시 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 가나자와시가 오는 9월 전주에서 열리는 '2017 대한민국 독서대전'에 참가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박용자 완산도서관장을 비롯한 방문단이 국제자매도시인 일본 가나자와시 우미미라이 도서관을 방문, 인문문화유산 분야 교류 및 상호협력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015년 10월 일본 가나자와시 부시정단이 전주를 방문해 양 도시 간 인문 문화유산 교류 확대를 위해 도서관 우호 교류협약을 체결한 이후 도서관간 선진사례 벤치마킹과 정책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 이뤄졌다.

특히, 양 도시는 이번 교류에서 오는 9월 1일부터 3일까지 경기전 등 전주시에 있는 일본 가나자와시 오는 9월 전주에서 열리는 '2017 대한민국 독서대전'의 한·일 도서관 관계자 국제교류회에 가나자와시 도서관 관계자의 참석 및 프로그램 일정에 대해 공식 합의했다.

또한, 이번 방문에서는 도서 50권 상호 기증식 공동연구과제인 '이동독서 진흥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사례발표 및 실무자 의견 교환 등 독서진흥 정책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박용자 완산도서관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국제교류를 통해 기관 간 상호 자료교환 및 정보공유 등 연계사업을 추진하여 범람하는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수도요금 강력 징수활동 '총 8억 3000만원' 성과 거둬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는 지난달 12일부터 30일까지 상반기 고액 상하수도 체납사용료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고 총 8억 3000여만원을 징수했다.

이는 수도물의 안정적 공급과 하수처리 시설에 필요한 제반 사업비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체납된 상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선 결과물이다.

시는 3개반 10명으로 구성된 체납 단수반을 권역별·지역별로 투입해 체납

수용가에 대한 납부를 독려하고, 3개월 이상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처분을 실시했다.

특히, 시는 고질적이고 상습적으로 상하수도 사용료를 체납해온 115세대(4300만원)에 대해서는 단수 조치를 실시, 3200만원(92세대)을 징수했다.

또한, 3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중점 관리해 4200만원을 징수하고, 부동산과 차량 등 소유재산을 조사해 압류하고 있다.

/인재용 기자

1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전년 대비 18억 증가한 484억원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2017년도 제1기분 재산세 484억원(28만3,337건)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액은 484억(완산 273억, 덕진 211억)으로 전년보다 18억(3.8%)이 증가했다.

재산세 납세자는 지난 6월 1일(과세기 준일) 현재 주택 및 건물 소유자로 주택본(10만원 이하)는 7월 일괄 부과와

1/2과 상가 등의 건축물에 대해 과세했으며, 납부기한은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이다. 이에 앞서, 시는 재산세 과세를 위해 지난 1월부터 구·동 세무담당공무원 50여명이 개별주택조사와 건축물·토지 일체조사 등 수시로 현장 출장조사를 실시하고, 정확한 과세자료를 구축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왔다.

/인재용 기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근절 홍보 실시

전주시 완산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와 주차방해차량 근절을 위한 계도 및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홍보활동은 최근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돼 행정자치부 생활불편 신고앱을 이용한 민원신고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아파트, 상가 등 지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시민에게 적극 알

리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일부 약제 운전자들은 '비어있는 곳을 쓰는 것이고, 아파트는 사적공간인데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장애인의 고통을 무시하는 사람이 많아 장애인을 배려하는 시민의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인재용 기자

군산서, 추돌사고 1명 중상 2명 경상

대형 트레일러와 승용차 간 3중 추돌사고가 11일 오전 8시 40분께 군산시 미성동 육교교차로에서 발생했다.

해당 사고는 카니발 차량이 진로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앞서 가던 그랜저 차량을 들이 받고 뒤에서 따라오던 대형 트레일러가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두 차량을 추돌하면서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그랜저 운전자 A(65,여)씨가 중상을 입어 현재 병원 응급실에 입원중이며 카니발 운전자 B(34,남)씨와 대형 트레일러 C(47,남)씨는 경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상민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친절기사 표창으로 서비스 '업그레이드'

택시 모범 운전원 김순안씨 등... 전주시 매 분기별 선정 격려

전주시가 친절가사에게 시장 표창을 수여하는 등 택시 친절서비스를 높여나가고 있다.

시는 11일, 2017 2분기 택시 친절기사 표창식을 개최하고, 친절가사로 선정된 김순안 씨 등 법인택시 친절기사 19명에게 시장 표창장을 수여했다.

택시 친절기사 표창은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자발적인 친절 서비스 정착과 모범 운수종사자로서의 자긍심 고취 등을 통해 시민들의 택시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시

는 지난해부터 매 분기별로 친절가사를 선정해 격려해오고 있다.

이날 표창을 받은 택시 친절가사들은 전주시 법인택시에 소속된 택시운수종사자들로 전주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차량 내 청결유지와 승객에 대한 친절한 응대는 물론, 승객이 두고 내린 분실물 찾아주기, 노사화합과 성실한 근무태도 등이 돋보이는 모범 운전원들이다.

수상자 중 임재선 친절가사는 10년 무사고 장기근속자로 단한번의 불면민원 야기없이 안전운행과 승객에 대한 친절함 응대에 모범을 보여오고, 지난 5월에는 승객이 놓고 내린 중요 물품을 수소문해 찾아주는 선정을 베풀어 친절가사로 선정됐다.

또한, 소순석 친절가사는 평소 차량 청결유지는 물론 휠체어를 탄 승객이 승하차 시 불편함이 없도록 친절히 배려하고, 지난겨울에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직접 병원접수 창구까지 모셔다 드리는 등 타의모범을 보여와 수상자로 결정됐다.

/인재용 기자

www.jjnh.co.kr

조합원님!! 자식 같은 농산물 모두 팔아주는 농협을 만들겠습니다.

전주농협 산지유통센터 신축으로 전주시 통합마케팅 시스템 구축 로컬푸드직매장 10곳 개소로 영세농업인 소득향상

복숭아

미나리

장미

호박

전주농협 산지유통센터

조합장 임인규

상임이사 (신용)오재식
상임이사 (경제)나병훈

이사 김대진, 김양순, 김종표, 김태영, 김형수, 송재국, 신동선, 오남석, 유석용, 이상현, 이성광, 주동현

사외이사 김병운, 이희열

감사 정무성, 조미희

전주농협 Good 농산물